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에이블

<table>
<tr><td rowspan="8">1주차</td><td>일시</td><td colspan="2">3월 28일 15 : 00 창의관 509호</td></tr>
<tr><td rowspan="5">참여 학생</td><td>클럽원 정보</td><td>참석 여부</td></tr>
<tr><td>동하정(2253057)</td><td>O</td></tr>
<tr><td>이승은(2291058)</td><td>O</td></tr>
<tr><td>정수현(2291063)</td><td>O</td></tr>
<tr><td>박세은(2253017)</td><td>O</td></tr>
<tr><td>진도</td><td>도서명: 디자인 인문학</td><td>진도페이지: 1p. ~ 10p.</td></tr>
<tr><td>토론 내용</td><td colspan="2">
[좌측부터 동하정, 정수현, 박세은, 이승은, 남지아 교수님]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내용 작성
만나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진행하고 토론을 나누었다. 디자인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책의 주제와 연관지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하정 : 이미 AI가 그림도 그려주는 시대 디자인이 뭘 해야하는지 자주 고민하고는 했다. 그런데 이 책을 보고 다른 분야와 접목해 나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수현 : 책을 자주 읽기 힘든데 전공과 관련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좋았다. 평소 과제를 위한 디자인만 하다가 이런 책을보니 환기 되고 좋았다.
박세은 : 표지에 나와있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교수님이 파리채라고 알려주셔서 저런 디자인이 나온게 신기하였다.
이승은 : 인테리어/VMD수업을 듣고 있어서 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 책에서 제품 뿐만 아니라 건물 디자인에 대해서도 나와있는 것 같아 흥미로울 것 같다.</td></tr>
</table>

<table>
<tr><td rowspan="7">2주차</td><td>일시</td><td colspan="2">5월 10일 14 : 00 학술정보관 그룹 스터디실 5F</td></tr>
<tr><td rowspan="5">참여 학생</td><td>클럽원 정보</td><td>참석 여부</td></tr>
<tr><td>동하정(2253057)</td><td>O</td></tr>
<tr><td>이승은(2291058)</td><td>O</td></tr>
<tr><td>정수현(2291063)</td><td>O</td></tr>
<tr><td>박세은(2253017)</td><td>O</td></tr>
<tr><td>진도</td><td>도서명:</td><td>진도페이지: 10p. ~ 87p.</td></tr>
<tr><td>토론 내용</td><td colspan="2">

[좌측부터 동하정, 정수현, 박세은, 이승은]

동하정 : 책 내용 중 디자인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떤 디자인이 가장 좋은 것 같다고 물었을 때 잘 팔리는 디자인이 좋은 것 같다는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찔렸다. 나도 판매량에 집중했는데 내 생각을 작가가 꼬집어 아팠다.
정수현 : 디자인은 다른 요소도 중요하지만 우연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술 중심이나 인문학 중심 등 시대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자신이 잘 맞는 시대에 태어나 잘 맞는 디자인을 하는 운도 중요한 것 같았다. 결국 가치관이 중요한 것 같다.
박세은 : 시대에 따라 유행이 달라 운이 중요하다는 수현이의 말에 공감이 갔다. 책 내용 중 사람들은 약 3800개의 제품을 무심코 지나친다는 말이 있었는데, 정확한 수치가 와닿아 전공이 막막해지는 것 같았다.
이승은 : 책 쓴 작가가 인문학에 치우져 기능주의를 폄하하는 것 같았다. 기술도 좋은 점이 있는데 인문학만 강조한 느낌이 들었다. 기술과 기업 중심의 디자인을 비판하고 소비자 중심을 강조하는데 나는 이익을 위해 디자인 하는거라 상충되는 나와 상충되는 의견을 가진 것 같았다.

책에서 소개한 다양한 디자인 중 노드의 콘센트 디자인이 인상 깊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외에 소개된 디자인들을 보며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을 나누었다. 디자인은 실용이 더 우선되는가 미적인 것이 우선되는가 각자의 가치관을 이야기 하며 좋은 디자인에 대해 토론을 나누기도 하였다.</td></tr>
</table>

<table>
<tr><td rowspan="7">3주차</td><td>일시</td><td colspan="2">5월 17일 14 : 00 학술정보관</td></tr>
<tr><td rowspan="5">참여 학생</td><td>클럽원 정보</td><td>참석 여부</td></tr>
<tr><td>동하정(2253057)</td><td>O</td></tr>
<tr><td>이승은(2291058)</td><td>O</td></tr>
<tr><td>정수현(2291063)</td><td>O</td></tr>
<tr><td>박세은(2253017)</td><td>O</td></tr>
<tr><td>진도</td><td>도서명:</td><td>진도페이지: 90p. ~ 183p.</td></tr>
<tr><td>토론 내용</td><td colspan="2">
[좌측부터 이승은, 동하정, 박세은, 정수현]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내용 작성

동하정 : 샤넬의 디자인이 가장 인상깊었다. 원래 샤넬의 디자인을 좋아하긴 했지만 자세히는 몰랐는데, 이번에 현대옷의 디자인을 샤넬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놀랐다.
박세은 : 에바 솔로의 주방용 저울이 인상 깊었다. 그저 스프링이 들어간 것 뿐인데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저울의 이미지가 바로 와닿는게 좋았다.
정수현 :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사회에서 이런 독특한 디자인이 발달할 수 있는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그런 것 같다. 우리나라는 집단주의가 강해서 이런 디자인이 발달하기 힘든 것 같다.
이승은 : 내가 아는 사례가 많아 좋았다. 특히 뵤뵤인에 직접 가봤어서 관련된 경험이 떠올라 좋았다. 또 이화여대 건물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책에서 소개해 주어 좋았다.

책을 읽고 각자 마음에 드는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 하기로했다. 각자 개성에 따라 좋아하는 디자인이 달라 흥미로웠다.</td></tr>
</table>

<table>
<tr><td rowspan="7">4주차</td><td>일시</td><td colspan="2">5월 24일 15 : 00 창의관 509호</td></tr>
<tr><td rowspan="5">참여 학생</td><td>클럽원 정보</td><td>참석 여부</td></tr>
<tr><td>동하정(2253057)</td><td>O</td></tr>
<tr><td>이승은(2291058)</td><td>O</td></tr>
<tr><td>정수현(2291063)</td><td>O</td></tr>
<tr><td>박세은(2253017)</td><td>O</td></tr>
<tr><td>진도</td><td>도서명:</td><td>진도페이지: 186p. ~ 271p.</td></tr>
<tr><td>토론 내용</td><td colspan="2">
[좌측부터 동하정, 정수현, 이승은, 박세은, 남지아 교수님]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내용 작성

동하정 : 디자인은 순수미술에서 떨어져 나와 다른 갈래를 걷기 시작했지만 결국 도달하는 곳은 순수미술과 비슷한 것 같다. 산업화된 디자인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개성을 추구하는게 순수미술과 비슷한 결인 것 같다. 작품 중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 의자가 가장 인상 깊었다.
정수현 : 책을 읽고나니 디자인과 인문학의 접목이 잘 와닿았다.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 나중에 쓸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다. 소개된 작품중에서는 해골의자가 특히 인상깊었는데, 단순한 디자인으로 깊은 인상을 주어 좋았다.
이승은 : 뒤의 내용을 읽으니 디자인에서 상업성만 추구하면 성공하기 힘든 것 같다. 후반에 철학 인문학 이야기해서 좋았다. 나는 특히 무인양품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좋았다. 브랜드의 세계관이 확실하면 좋은 것 같다.
박세은 : 전에 토론에서 디자인은 기능/예술성 중 어디에 더 집중하는게 좋은지 팀원들의 의견을 나누었었는데 이번 내용에 이어져서 좋았다. 하지만 난 포스트모더니즘이 아직 어려운 것 같다. 나는 디자이너가 된다면 기능, 합목적성에 집중한 디자인을 할 것 같다.</td></tr>
</table>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동하정 (2253057)	학기가 시작하면 바빠서 책을 잘 안읽게 되는데 이번 활동으로 책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게 되어 좋았다. 이번에 읽은 '디자인 인문학'에서는 인문학과 관련된 디자인을 소개하고 해석해주었다. 같은 디자인과의 친구들과 교수님과 함께 읽으니 토론을 즐겁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책을 읽으며 좋아하는 디자인을 꼽을 때 각자 취향에 따라 다른 디자인을 말해 나와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평소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는 했는데 이 책을 읽고 토론하며 새로운 방향성이 잡힌 것 같아 좋았다.
	2	이승은 (2291058)	이번 독서클럽에서 '디자인 인문학'을 읽고 토론했다. 디자인이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다는 점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같은 전공을 공부하는 친구들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디자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성장할 수 있었다. 좋은 디자인의 예시를 공유하며 디자인의 기능성, 편의성, 사회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을 이해했다. 교수님께서 앞으로 토론 모임의 방향을 제시해주셔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동료가 생긴 느낌이다. 이번 모임은 디자인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3	정수현 (2291063)	최근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독서의 필요성을 고려하게 되었다. 독서활동은 계속해서 목표로 삼고 있었지만, 학기 중에는 많이 읽어봤자 3권이었다. 스스로 하기는 어려워서 책임이 부여되는 활동을 강구하던 중 동기들로부터 독서토론 활동을 추천받았고 함께 하게 되었다. 읽기만으로도 생각의 확장이 가능했지만, 토론을 통한 의견 공유로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까지 고심할 수 있게 되어 유익했다. 더군다나 교수님과 함께 해 책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내용까지 배울 수 있던 점이 좋았다. 앞으로도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4	박세은 (2253017)	어떤 사람은 독서토론이 단순히 같은 책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독서 후 다같이 모여 자신의 생각을 나누며 많은 것을 이야기 한 것 같다. 토론을 통해 각자의 평소생각이나 견해, 성향등을 듣고 생각의 다양성에 놀라기도 했다. 디자인과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대중들에게 디자인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때 이 토론수업을 떠올리며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른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일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